사랑을 설명하는 일곱 가지 관점

사랑의 조건은 사랑이 생기는 계기나 전제, 형성 과정은 사랑이 자라거나 달라지는 경로, 도덕적 책임은 다른 의무와의 관계를 뜻합니다.

저자	사랑의 조건	사랑의 형성 과정	사랑과 도덕적 의무
플라톤 고대	좋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망	한 사람의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 자체로	덕을 낳는 방향을 제시. 의무 충돌의 판정은 다루지 않음.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상호 호의와 그에 대한 인식. 깊은 우정은 좋은 성품에 뿌리를 둠.	함께 지내며 성품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음.	친구의 개선을 돕고, 책임이 부딪치면 관계와 필요를 따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중세	자기 보존과 필요에서 출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감.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함.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연결. 모든 충돌의 판정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좋다고 알아본 대상. 카리타스는 하나님과의 우정.	일반 사랑은 좋음을 알아보며 시작. 카리타스는 은총으로 받고 실천하며 깊어짐.	사랑과 정의를 같은 목적으로 향하게 함. 충돌하는 사안은 신중히 판단.
스탕달 근현대	감탄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	감탄에서 희망으로, 사랑과 결정화로. 의심이 다시 상상을 자극함.	연애 감정의 변화가 중심. 독립적인 도덕적 의무와의 조화 원칙은 제시하지 않음.
버트런드 러셀 근현대	자유와 자발성은 사랑이 자랄 조건. 충만한 사랑은 기쁨과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포함.	애정을 받으며 안정과 자신감이 생기고, 서로 애정을 줄 여유가 커짐.	당사자와 자녀에게 생길 결과를 따짐. 궁극 목적의 보편적 증명과 구분.
해리 G. 프랑크푸르트 근현대	생물학적·자연적 여건과 성격·경험이 영향을 줌. 의지로 대상을 고를 수 없음.	발생 단계보다, 사랑한 뒤 대상이 특별해지고 행동의 이유가 생기는 과정에 초점.	사랑은 독자적인 행동 이유를 줌. 도덕이 언제나 우선하지 않으며 일부 갈등은 남음.

비교할 때의 주의점 · 『향연』의 에로스, 아리스토텔레스의 필리아, 중세의 하나님 사랑, 근현대의 연애와 돌봄은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원문은 문서 안의 출처 링크에서 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가

사랑을 일으키는 계기나 전제와, 이미 성립한 사랑의 구성 요소를 구분했습니다.

저자	조건과 전제
플라톤 고대	디오티마의 설명에서 에로스는 좋은 것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욕망이다. 욕망은 결핍에서 시작한다. 이미 가진 것도 앞으로 계속 갖고 싶을 때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플라톤『향연』 200a–206a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필리아는 유익함, 즐거움, 좋은 성품을 바탕으로 성립할 수 있다. 우정에는 서로가 잘되기를 바라고 그 호의를 서로 아는 일이 필요하다. 가장 완전한 우정은 좋은 성품을 가진 이들이 상대 자신을 위해 그의 선을 바라는 관계다.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 제2–3장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중세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힘만으로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그분 자신 때문에 사랑할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먼저 베푸신 사랑을 든다. 베르나르『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제1장, 제8–10장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사랑은 좋다고 알아본 것을 향한다. 대상의 좋음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지만 완전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카리타스는 별도로, 하나님이 자신의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데 바탕을 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아퀴나스『신학대전』 I–II, 제27문 제1–2항 · 아퀴나스『신학대전』 II–II, 제23문 제1항
스탕달 근현대	감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도 나를 좋아할 수 있다는 희망이 더해지면 사랑이 싹틀 수 있다. 첫눈에 반하는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려 온 이상형과 닮은 사람이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랑의 시작과 끝은 의지로 정할 수 없다고 본다. 스탕달『연애론』 제2장 · 스탕달『연애론』 제3장 · 스탕달『연애론』 제5장 · 스탕달『연애론』 제23장
버트런드 러셀 근현대	사랑은 자유롭고 자발적일 때 자랄 수 있고, 배우자를 사랑해야 한다는 압박은 사랑을 해칠 수 있다. 상대에게서 느끼는 기쁨과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만한 사랑의 구성 요소다. 러셀『나는 무엇을 믿는가』 제2장 · 러셀『결혼과 도덕』 제10장
해리 G. 프랑크푸르트 근현대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지에는 인간의 기본 필요와 개인의 성격·경험이 관여한다. 그는 자녀의 성격과 장점을 알기 전부터 사랑했다고 말하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일반적 경향을 자연선택으로 잠정 설명한다. 프랑크푸르트『사랑의 이유』 제2장 38–40, 47–49쪽

사랑은 어떻게 형성되고 깊어지는가

연애의 심리적 단계, 관계에서 쌓이는 신뢰, 하나님 사랑의 성장처럼 저자마다 설명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저자	형성 과정
플라톤 고대	한 사람의 아름다운 몸에서 시작해 여러 몸의 아름다움, 영혼, 삶의 관습과 법, 지식, 아름다움 자체로 나아간다. 이는 사랑이 향할 수 있는 철학적 수련의 경로다. 플라톤『향연』 210a–212a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경기에서 낯선 선수를 응원하듯 호의는 갑자기 생길 수 있다. 깊은 우정에는 함께 지내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믿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인도 처음의 매력이 약해진 뒤 서로의 성품을 좋아하게 되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코스 윤리학』 8권 제3–4장 ·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코스 윤리학』 9권 제5장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중세	①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함 → ②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 → ③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함 → ④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함.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 가는 일이 ②에서 ③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하다. 베르나르『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제8–10장, 제15장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일반적인 사랑은 좋음을 알아보고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 데서 시작한다. 카리타스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은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준비를 돕는다. 아퀴나스『신학대전』 I–II, 제27문 제1–2항 · 아퀴나스『신학대전』 II–II, 제24문 제2·6항
스탕달 근현대	감탄 → 즐거움의 상상 → 희망 → 사랑의 탄생 → 첫 결정화 → 의심 → 두 번째 결정화. 결정화는 상대에게 새로운 장점을 발견하는 상상력의 작용이다. 가까워진 뒤에는 실제 경험이 불안을 가라앉히거나 새 매력을 발견하는 재료가 된다. 스탕달『연애론』 제2장 · 스탕달『연애론』 제3장 · 스탕달『연애론』 제6장
버트런드 러셀 근현대	애정을 충분히 받으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자기 불안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릴 여유가 생긴다. 러셀은 이를 애정을 주고받는 능력의 발달로 설명한다. 러셀『행복의 정복』 제12장
해리 G. 프랑크푸르트 근현대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공통 단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사랑이 생기면 그 대상이 내게 특별한 가치를 띠고, 그 대상에게 좋은 일이 내 행동의 이유가 된다. 사랑 자체를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여건을 간접적으로 바꿀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사랑의 이유』 제2장 36–40, 47–49쪽

원문은 문서 안의 출처 링크에서 열 수 있습니다.

사랑과 도덕적 의무는 어떻게 만나는가

두 요구가 같은 행동을 지지하는 경우와, 둘 다 이행할 수 없어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저자	도덕적 책임과 충돌 사례
플라톤 고대	디오티마는 아름다움 자체를 관조하는 사람이 참된 덕을 낳는다고 말한다. 이 대목은 욕망이 덕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 준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공적 의무가 맞부딪칠 때의 판정은 제시하지 않는다. 플라톤『향연』 206b–209e, 210a–212a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친구가 나빠졌어도 개선 가능성이 있으면 성품을 바로잡도록 돕는다. 고칠 수 없다면 관계를 끝낼 수 있다. 또 은인에게 몸값을 갚는 일과 붙잡힌 아버지를 구하는 일이 겹친 사례에서는 아버지를 우선한다. 관계의 성격과 필요의 절박함에 따라 판단한다. 아리스토텔레스『니코마코스 윤리학』 9권 제2–3장
클레르보의 베르나르 중세	자기 필요에 갇힌 사랑은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넓어져야 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 방향으로 자라는 영적 설명이다.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한 일반 판정법은 이 글의 중심 주제가 아니다. 베르나르『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제8–10장, 제15장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카리타스는 정의를 포함한 덕의 행위를 하나님이라는 궁극 목적으로 향하게 한다. 가까운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어도, 아버지보다 낯선 사람이 훨씬 위급하면 낯선 사람을 먼저 돕는다. 자연법의 기본 원리는 신앙 고백 없이도 이성으로 알 수 있다. 아퀴나스『신학대전』 II–II, 제23문 제7–8항 · 아퀴나스『신학대전』 II–II, 제31문 제3항 · 아퀴나스『신학대전』 I–II, 제91문 제2항
스탕달 근현대	외도 뒤 화해하는 사례에서는 상대를 다시 이상화하는 마음이 배신의 기억과 반복해서 부딪친다고 묘사한다. 이 설명은 사랑이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 준다. 사랑에서 나온 요구와 독립된 도덕적 의무를 비교하는 일반 기준은 제시하지 않는다. 스탕달『연애론』 제36장
버트런드 러셀 근현대	결혼을 유지하는 일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모의 격렬한 다툼이 아이를 계속 해친다면 이혼이 더 나을 수 있다. 예상되는 결과를 따져 판단한다. 다만 궁극적 목적에서 견해가 갈릴 때 자기 이상이 옳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러셀『결혼과 도덕』 제10·21장 · 러셀『나는 무엇을 믿는가』 제2장
해리 G. 프랑크푸르트 근현대	물에 빠진 아내와 낯선 사람 중 한 사람만 구할 때, 아내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한 이유가 된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의 설명이며, 별도의 구조 의무와 맞부딪치는 경우의 판정은 아니다. 도덕적 이유의 무조건적 우선권은 인정하지 않고, 해소되지 않는 갈등도 남을 수 있다고 본다. 프랑크푸르트『사랑의 이유』 제2장 35–37쪽 · 프랑크푸르트『사랑의 이유』 제1장 6–9쪽 · 프랑크푸르트「Getting It Right」 195, 200–202쪽